



말레 팔라, 말레이시아에 취하다.

9월편_이모, 저희 왔어요.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볶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1. 9월 영업 일정

- 1)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 2)영업시간_생활 일과표

2. 단골손님_ 9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3. 메뉴

- 1) 정규set_바하사
_수화
_위즈마 하라판
- 2) 행사set_SCC moon cake festival
_IDD
_HOT GOSSIP
- 3) 친구set_하리라야 파티 at 누리타 친구
_하리라야 파티 at 위즈마 하라판
_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추억

4. 2차는 어디? _ 10월 말레팔라의 목표 _ 10월 녹색소비 목표

1.9월 영업 일정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봄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1) 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서울	말레이시아 도착	KL투어	KL관광 With 홈스테이
5	6	7	8	9	10	11
OT	위즈마 하라판				풍선아트 & 페이스 페인팅 연습	IDD!
수화				IDD 준비		
12	13	14	15	16		18
위즈마 하라판	SCC 공연준비	SCC	위즈마 하라판	KLr관광	노리타 OPEN HOUSE !!	
수화		수화				
19	20	21	22	23	24	25
HOT GOSSIP 준비	위즈마 하라판		OPEN HOUSE !!		HOME STAY FAMILY 저녁대접 -비빔밥-	HOT GOSSIP
바하사						
26	27	28	29	30		
	베다니홈 출발	베다니 홈				

1.9월 영업 일정

영업시간_생활 일과표

나시고랭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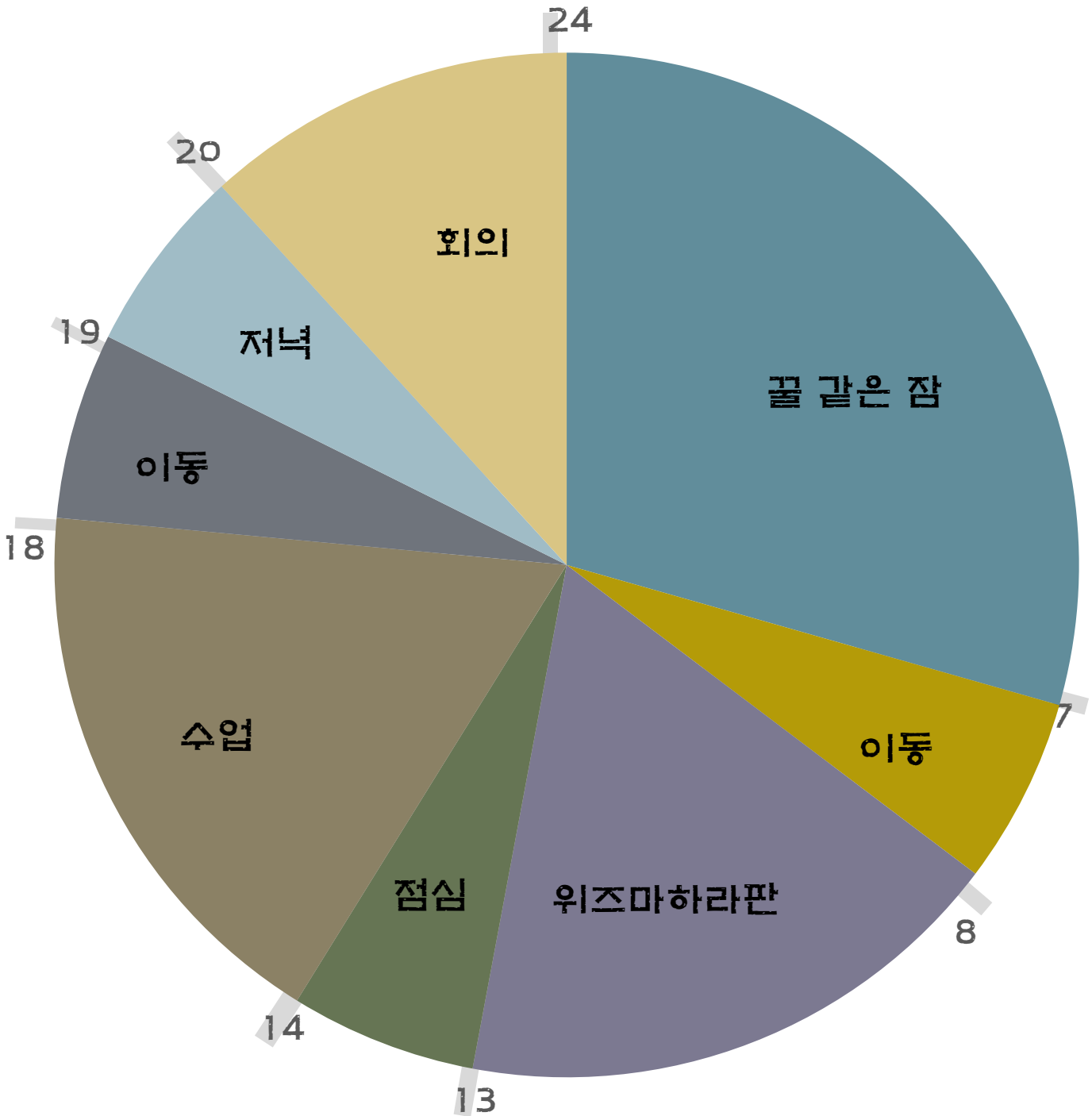
로티눔
1.20

플랜이
30.5

홍합탕
20.0

나시트막
6.00

원란미
7.80



2. 단골손님

9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폴뱅이 30.5

홍합탕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사고아씨 숙정

누리타

YMCA

감성양파 승현

현지A.B. 희정

애결왕자 범진

대상궁 은지

HOME STAY

위스마 하라판

BOY's HOME

GIRL'sHOME

POOL CAFE

2. 단골손님

나시코랭	로티폼	폴뱅이	홍합탕	나시르막	원란미
			20.0	6.00	7.80

9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청소아주머니

언제나 웃으며 HOW ARE YOU?

경비아저씨

아름답고 수줍은 미소의 그.
잘자라며 에어컨을 꺼주는 섬세남.



이용
언제나피곤한
매력 넘치는 4차원



쟈스민
Y이 데프 스텝
동안 얼굴, 파란 아이세도
우를 소화하는 능력자!



**하리랴야 오픈하우스의
주인공 누리타 친구**



키맹
슬레이어즈 제로스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예리한 눈빛
YMCA의 훈남

조세핀

Y의 데프 스텝,
데프 단편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출연



누리타 친구의 사촌

승현曰
“ 골키퍼가 있는 사랑은. 아프다.”



아이린

원래는 우리 현지 코드
바쁜 그녀. 두 번 밖에 못 만났지만
자상한 카리스마에 반함.

우리 바하사 선생님 . 표범 레깅스의
자신감. 그녀는 외친다..BOLEH!!!

누리타



몰리

사실상 우리 현지 코드 ☺
그녀는 언제나 말한다. 아!이야~



샌디

Y의 데프 스텝 및 우리 수화
선생님 정확한 한국발음으로
하는 말! “몰라, 바보”



에스더

Y이 데프 스텝, 장난꾸러기,
소년 감성!!!



베니

Y의 데프 클럽
숙정이는 궁금하다.
그에게 여친구가 있을까?



위스마 하라판

HOME STAY

2. 단골손님

9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팝빙이

30.5

홍합탕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누리타

YMCA



HOME STAY

위스마 하라판

GIRL'S HOME



로라

여자 홈스테이의 집주인.
컴퓨터 박사 이자 영화배우(엄청난 연기력!)

BOY'S HOME



캐서린

캐서린-대릭 여동생..
언제나 공부하는 모범생 소녀



데릭친구

데릭의 오래된 고향 친구
건축을 전공했으나 때려치고
인테리어로 전향.
차칭 오타쿠.

POOL CAFE



캠(?)

Pool café 주인 아들 및 후계자, 백만불짜리 미소, 빛나는 머리결그리고 라임 아이스.



바이러스 다 죽어라 나는야 Computer Doctor!!

2. 단골손님

9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팝빙이 30.5

홍합탕 20.0

나시르막 6.00

원탄미 7.80

누리타

YMCA

니잠

LITTLE 강동원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 얼굴
나이키 춤을 추려고 노력한다.



숙정 승현

희정 범진

은지

HOME STAY

위즈마 하라판

하일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이



쁘바나

위즈마 하라판 학생
그녀의 머리띠, 자신감



사이 뿌라

위즈마 하라판 선생님
슬픈 눈망울의 동그란 선생님
그러나!화나면 돌변!!!



경비아저씨

베니

우리를 항상 보살펴 준 담당 선생님.
우리를 몹시 칭찬함.후후.



식당아줌마

위즈마 하라판 식당 아줌마

매일 우리의 일용한 간식을 챙겨주는 은인

나즈린

라.온.아.띠 를 외치는 우리의 "친구" 고마운!!!



파란옷 선생님

뭔가 모를 우아한 압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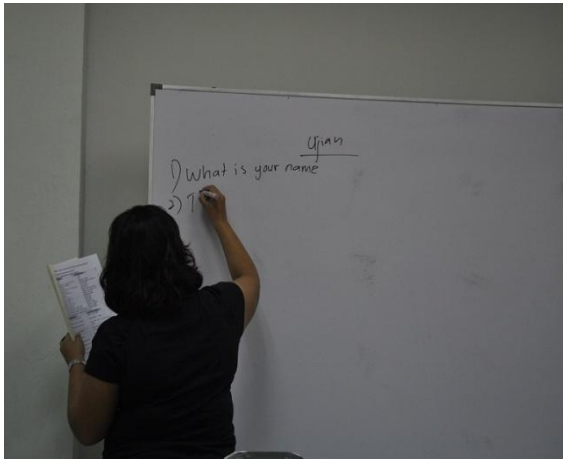
3. 메뉴

나시고랭	로티폼	콜뱅이	홍합탕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1) 정규set 바하사

일주일 정도 말레이시아어인 바하사를 배웠다. 말레이시아인인 누리타 선생님과 함께 바하사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희정 : 말레이시아에 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그 첫 날 느꼈던 바하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바하사 공부를 열심히 안한 것에 반성한다. 바하사는 몹시 쉽다고 하던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건지!! 이제서라도 불끈 불끈 공부해야지!!
 그래도 말레이시아인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ymca에서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느꼈다면, 누리타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과 하리랴 파티에 초대되어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져본 것 등 이슬람계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수화와 함께 바하사를!! 뒤쳐진 만 열심히 따라가서 바하사로 대화를 해 보이고 말겠다.



범진 : 바하사가 생각보다 쉽게 느껴졌다.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수업이 지루했고 집중하지 못했다. 하리랴 파티에 초대받은 것과 수업시간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에 대해 말해 주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다.

승현 : 언어 영역에 약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영어도 못해서 째째 매어 힘들었지만 영어로 수업하는 바하사 수업은 더 힘들었고 어려웠던 같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잘 못 따라 왔다.

은지 : 기대했던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당황스러웠지만 선생님 나름의 수업진행과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수업방식이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바하사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싶다. 위즈마 하라판등에서 바하사를 더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듣기 부분에 관해 전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선생님의 시간 개념이 그리 확실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일정표 상에서 3-4 시간씩 수업을 몰아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열정적인 선생님에게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숙정 : 바하사를 배우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다. 처음엔 사실 큰 비중을 두고 배울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바하사를 배우고 누리타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소통 수단 이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애정과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그대로 드러남을 깨달았다. 또한 위즈마 하라판 활동을 함께 해나가면서 현지어를 이야기 하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 듣는 나를 보며 웃었는데 그 순간의 민망함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의 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늦게나마 깨닫게 해준 선생님께 감사한다.



3. 메뉴

나시고랭	로티폼	폴뱅이	홍합탕	나시프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1) 정규set_수화

YMCA의 Deaf Staff 중 한 분인 Sandy선생님에게 2주 가량 수화를 배웠다. 과일, 동물, 운동, 물건, 음식, 반대어 등의 주제로 매 시간 수화를 배웠고 마지막에는 수화를 이용한 이야기 전달 테스트를 가졌다.

승현 : 개인적으로 수화 실력이 많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받는 기분이 썩스러웠다.(수료증)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을 극복해야겠다.



범진 : 수업 시간 외에도 스텝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에용(스텝)도 우리가 보기엔 데프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수화 클래스 수강)을 보며 우리도 비록 수업이 끝났더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터디나 생활에서의 사용 등 팀 차원에서 수화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했다.



희정 : 데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뜻 깊었다. 구미에서 처음 데프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만난 자체로 새로웠는데, 이제는 함께 대화를 하고 농담을 할 수도 있으니 또 다른 언어를 알게 된 기분이다. 지금은 정말 많이 미흡하고 공부할 것이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려고 노력해서 데프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고 싶다.

은지 : 수화를 하는데 있어서 한동작 한동작 정확하게 구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라 그것을 실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했으면 한다. 그리고 Deaf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다. 샌디가 열심히 가르쳐 주었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미안했고,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



숙정 : 수화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표정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소통방식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내가 소통을 맺으며 저질렀던 단점들을 보완해주었다. 나는 수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흐름을 금방 놓치게 되는 실수들을 하였고 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수화수업은 매 시간마다 즐거운 놀이를 하는 듯 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베다니홈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새로운 소통방식을 계속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메뉴

나시고랭	로티폼	폴뱅이	홍합탕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1) 정규set_위즈마 하라판

위즈마 하라판

위즈마 하라판은 정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다. 말레이시아에 여러 분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봉사한 KL의 위즈마 하라판은 5-6세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간단한 일을 하는 어른들 까지 대략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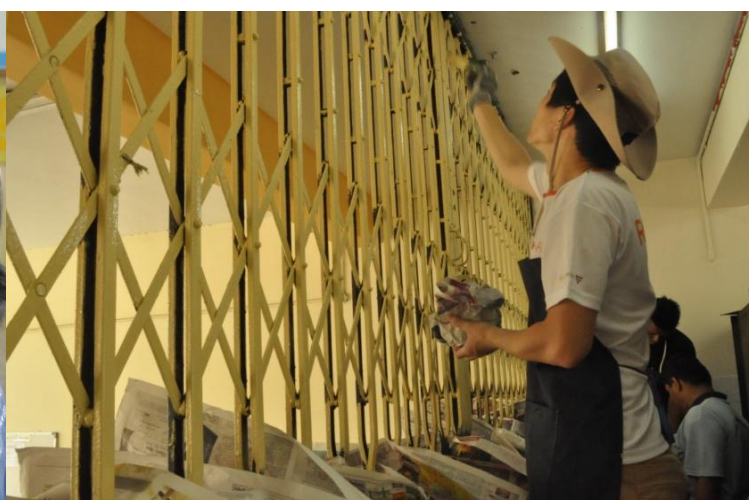
유아들을 위한 반인 early intervantion , school program인 Lv1-Lv6, 직업교육을 하는 vocational class,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간단한 일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반 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위즈마 하라판에서의 우리 _ 10일 동안.

Art Class : 팽이 만들고 놀기



Painting : 주방의 모든 철창에 환한 페인트칠 5일!



Game Class 동동 동대문을 열러라



Cooking Class : 호떡 만들기



3. 메뉴

나시고랭	로티폼	폴뱅이	홍합탕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1) 정규set_위즈마 하라판

승현: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다. 그 안에서 노동, 수업, 인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좋았다.

은지: 말이 안 통하고 산만한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다. 아쉬운 점은 일부 아이들만 소통했으며 우리가 진행했던 클래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여러 수업들을 준비해서 진행했고 특히 나는 호떡을 만드는 요리 수업을 맡아 준비했는데, 실수도 하고 도구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학교의 HARI RAYA 파티에서 부끄러운 아리랑과 우리 춤을 보여주어서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모두들 재미있어 해서 좋았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웠다. 이 곳이 너무 즐거워서인지 베다니 홈이 더 기대된다.

범진: 아쉽다. 페인트 작업을 통해 나즈린과 친하게 지내서 좋았다. 적극적으로 클래스를 시도한 점 역시 좋았다. 이에 대한 클래스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 수업이나 진행에 대해 경험해서 좋았고, 우리 팀의 색깔로 적극적으로 잘 생활 한 것 같다.

숙정: 위즈마 하라판에서의 활동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진행 하고 싶은 클래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피력 했다는 것이 능동적이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관계 측면에서도 많은 봉사자들이 왔다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느낄 만남과 이별에 대한 생각들과 이에 떠나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었다. 또한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수업방식과 관점들에 대해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욱 재밌는 활동을 한 것 같다.

희정: 클래스 보다 일을 하거나 수업준비를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했어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반대로 수업 준비나 일을 도우면서 위즈마 하라판 스태프나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더 맺을 수 있는 기회였다. 많은 봉사자들이 오고 감에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해준 위즈마 하라판의 모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 전체적으로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방식이나 수업방식등을 익힐 수 있었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향들을 조금씩이나마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3. 메뉴

나시고랭	로티폼	폴빵이	홍합탕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2) 행사 set_SCC moon cake festival

YMCA의 어르신 분들의 모임인 SCC에서 하는 moon cake festival 에 참여했다. 중국계분들의 축제인 이 날은 월병 (moon cake)을 나눠 먹고 등불을 키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는 이 날 한국의 춤인 소녀시대의 GEE와 이 명절의 노래인 "Yue Liang Yuan" 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대 위에서 공연했다.



우리 Gee 춤은 성공적이었던 거 같아, 모두 수고했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어?!



반응은 좀 약했지만, 우리가 연습한 시간을 생각하면 잘한 거 같은데?!

: 그런 것 같아요, 노래도 하루 속성에 중국 발음 생각하면 잘 했어요 우리~ㅋ 숙정아 춤 가르치느라 수고했어!



: 몸치오빠 언... ㅎㅎ 수고하셨습니다. 언니는 월병을 많이 드셨어요?

: 응, 많이 먹었어 원없이 먹었다.ㅋ



나한테는 좀 달아! 양금이랑 빵이 꼭 우리나라 황남빵 같은데 좀 다르지 맛이? 오늘은 월병 나눠 먹으면서 서로 복을 빌어 주는 날이래



전설도 있는데, 하늘나라 여자와 땅의 남자가 사랑했는데 여자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걸 기념하면서 나눠먹는 거라는데, 우리 나라 견우직녀 비슷하다 그지?



3. 메뉴

2) 행사set_SCC moon cake festival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폴빵이 30.5

홍합탕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그 빵 사이에 기밀 쪽지를 주고 받아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래요.

: 아... 그런거였어?! 나는 몰랐네...;; 그저 춤추고 노는 날인지 알았지. 그럼 어제 애들이 불을 밝히고 한 것도 이날 행사의 일부인거지?



응. 이게 중국계의 명절인데, 우리나라 추석이랑 비슷한가봐. 달이 가장 큰 날 등불을 들고서 거리 행진하고 주변 친척 친구들이랑 음식 나눠먹고 그런대.



그러니 우리는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Mid-autumn 을 보낸거야. 근데 오늘 본 어르신들 참 인상적이었어,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 보였어. 부러워...



나도나도, 그리고 역시 음식은 홈메이드가 젤 맛있는 거 같아. 어르신들께서 손수 싸오신 음식♡



응, 나도 맛있게 먹었어. 잘 먹고 잘 놀다 끝났다 그치? 보름달 같은 하루였어! ㅋㅋ

3. 메뉴

나시코랭

5.50

로티폼

1.20

폴뱅이

30.5

홍합탕

20.0

나시트막

6.00

원란미

7.80

2) 행사set_IDD

International Deaf Day의 준말인 IDD는 전세계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날이다. 세계 각 국 기관 및 단체에서는 데프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 날 만큼은 각 지역의 데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보 교환과 일자리 알선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데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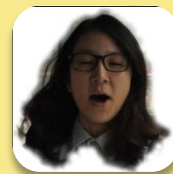
우리도 이 날 YMCA에서 열리는 IDD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을 도왔다.



언니 IDD날 앵그리 버드 페이스 페인팅 왜 하셨어요????



사고였어..... 난 그냥 앵그리 버드가 좋아서 그려달라고 했을 뿐이야.. 단지 얼굴 전체에다가 그려준다기애 그런가 보다 했는데...



ㅋ 그래도 그날 데프들이 언니한테 많은 관심과 즐거움을 준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애들은 언니랑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요.

음하황 하긴 그날따라 뜨거운 시선들이 많이 느껴진 하더라. 그건 그렇고 그날 승현이가 만든 테디베어 풍선아트도 완전 히트했어. 그날 매상 1위 아니었나 하하하하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지. 칼이나 모자도 인기 많았어. 근데 숙정아 너는 땡벌에서 계속 고생했잖아



3. 메뉴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폴빵이

30.5

홍합탕

20.0

나시르막

6.00

원판미

7.80

2) 행사set_IDD

훗 사실 그날 매상 1위는 낚시 게임 이였어요. 하하하하 강태공들이 어찌나 많던지. 낚시 놀이 하는 동안 같이 온 데프 부모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한 게 수화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귀엽다는 수화를 어찌나 많이 했는지 ♪



그래 밖에 데프 비트 하는 사람들이랑 바자회 한건 어땀어? 나는 수화로 대화해서 김밥 사왔어 그리고 나보고 자꾸 데프냐고 묻는걸 보니 내 수화가 꽤 훌륭했나봐 ♪ 은지야 너는 2층에서 뭐한거야 시원한데서 좋았겠다.???????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옆 테이블엔 베니가 있었죠 *^^* 나는 거기서 데프들이 사용하는 옛날 물건에 대해서 수화로 설명해주는 일을 했어. 샌디가 잘한다고 칭찬도 해줬어



사실,내가 더 잘했지. 나는 데프들이 사용하는 초인종과 알람에 대해 설명해줬어. 역시 수화로. 또한 일반인들에게 동물을 수화로 가르쳐줬어. 행사 직전에 배운 거라 쯤 했지

아, 로라네 집에도 데프 초인종이 있었어요. 현관에서 불이 반짝반짝~~



3. 메뉴

나시코랭	로티폼	콜뱅이	홍합탕	나시트막	원탄미
5.50	1.20	30.5	20.0	6.00	7.80

2) 행사set_IDD



범진 이랑 은지가 있던 홀 옆에선 데프 직업박람회 같은 것도 열렸던데..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 데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상담과 직업소개 일을 하는 것 같았어.

이야~~~~~ 이런 데프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다니... 이 행사를 통해 데프들의 삶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저도요, 수확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이날 데프친구들과 봉사자 친구들을 엄청 많이 사귄 것 같아요. 벌써 폐북 친구 신청이...



나는 바자회에서 뭐 사먹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거리는데도 말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느낌이 참 인상 깊었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 같았어.



3. 메뉴

나시고랭	5.50
로티복	1.20
फल्लय	30.5
홍합탕	20.0
나시프막	6.00
원란미	7.80

2) 행사set_IDD



저는 평소에도 느꼈지만 말레이시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Y 스텝들도 데프들이 많이 있고,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 가도 웬만한 수화를 다 알아듣는 걸 보면 우리나라 보다 데프를 특별하게 보는 시각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행사가 열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온 걸 보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 애들아, 다들 수화 배우는 중에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해서 다들 뜻 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준비하는 시간들도 보람됐고 말야!! 다들 수화 공부 열심히 하고 관심 있는 데프친구들에게 계속 연락 하자 ☺



3. 메뉴

나시코랭	로티폼	폴뱅이	홍합탕	나시트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2) 행사set _HOT GOSSIP

KL DEAF CLUB 중심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데프들이 모여서 서로의 취미와 특기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 날에는 학예회 및 장기자랑 같은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는데, 데프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상황 연극, 콩트, 뮤직, 영화 상영등을 하며 서로의 문화 생활을 공유한다. 우리는 이 날 행사 준비를 돕고, 열심히 연습한 춤을 무대에 올라 선보였다.



언니오빠들, 저는 오늘 그 적막함 속에서 춤추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끝난 뒤에 열렬한 반응도 신기했어요.



그래, 그걸 생각하지 못했네... 그래도 손을 머리 위로 반짝이면서 박수치는 거... 아주 열렬했잖아, 우리 잘했어 잘했어. ㅋㅋ



다들 수고했어. 근데 우리 머리에 쓴 거 미키마우스인지 알았는데. 봐... 하지 말겠잖아.

그래도 승현아, 니가 제일 이뻐... ㅋ ㅋ ㅋ ㅋ ㅋ



우리 춤 말고도 로라의 뛰어난 연기에 놀랐어, 조세핀도 완전 배우던데?



3. 메뉴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콜뱅이	30.5
홍합탕	20.0
나시프막	6.00
원란미	7.80

2) 행사set _HOT GOSSIP



맞아, 난 데프들도 영화를 보고 만든다는 게 신기했어. 비록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재미있었어.

언니... 언니만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승현오빠도.. 우리 공부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내 옆에 앉은 학생들과 이야기 많이 했어. 그 중에 한명은 한국어 전공자라고 해서 간만에 한글로 필담을 나눴어~!ㅋ



아~ 저는 데프비트 한 사람들과 밥 먹었는데, 무대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의 친근한 모습을 보니까 참 색달랐어요.



아, 그래. 나 데프들이 복치는 게 불가능하다 여겼는데... 아니더라, 너무 잘하던데.



3. 메뉴

나시고랭	로티폼	콜뱅이	홍합탕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2) 행사set _HOT GOSSIP

맞아요, 저도 아예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치는 거랑 풍선 터질 때마다같이 놀라는 거 보고 저도 느꼈어요... 제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모두 반성합시다...ㅋ 그래도 우리 같이 한 복입고서 사진 찍고 그런거는 좋았어. 완전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ㅋㅋㅋㅋㅋㅋ



에스더가 우리랑 지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사진 막 찍자고 할 때는... 왠지 서운하고 아쉬웠어.



맞아요, 하역튼 모두 재미있게 놀고, 많이 배운 하루였던 거 같아요.



3. 메뉴

나 시 코 탕

5.50

로 티 붐

1.20

골 빵 이

30.5

홍 합 탕

20.0

나 시 르 막

6.00

원 판 미

7.80

3) 친구set_하리라야파티 누리타 친구's

이모

오랜만이네~ ㅋ 잘 지냈죠?! ㅋ 나?! 나도 잘 살았지~ ㅋ 요즘 왜 그렇게 뜸했냐고? 우리가 좀 바빴거든~ ㅋ 공부 하고 봉사활동하고... 오늘은 놀러갔어. BAHASA 선생님이 누리타 친구네 하리라야 파티에 초대받아 갔지. HARIRAYA가 뭐냐면... 무슬림들의 명절 같은 건데, '라마단'을 무사히 끝낸 기념으로 라마단이 끝난 그 다음 한 달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오픈하우스'의 형태로 음식을 나누며 하고 하는 일종의 파티야. 이슬람력에 따라 바뀌는 건데 우연히도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에 머무는 지금이 하리라야 기간이거든. 정말 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그지?! ㅋ

근데, 역시 즐거운 곳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 누리타와의 약속이 어긋나서 한참 기다리고, 주말이라 그런지 길도 막히고, 결정적으로!!! 누리타가 너무 오래 전에 와 본 것이라 친구네를 못 찾고 길을 헤매는 바람에 약 1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았지... ㅋ 숙정과 승현이는 한복까지 입고 있었는데 말이야... KL에 와서 처음 입은 한복의 기억이 그래... ㅋ ㅋ ㅋ

그래도 苦盡甘來라고... 그 한복이 파티에서 대박을 쳤어. 집주인 가족들이 한복이 너무 예쁘다고 어찌나 좋아라하던지... 숙정과 승현이는 자꾸 자기들이 한복이 잘 어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여든 그 돌발적인 인기를 보며, 은리랑 희정이는 덩다고 한복을 포기한 것을 후회했다. 누리타 친구네가 그 친구와 부모님, 그의 아이들과 동생들까지 엄청난 대가족이 한복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만큼 모두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 드라마에서 비롯된 한류열풍과 그 친구의 친구라는 분이 주한대사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궁금해 하는 것도 많더라구요. 한국말도 많이 물어보고, 한국 음식 같은 것도 물어보고... 다 대답하기 힘들 정도였단니까!! 뭐?! 영어가 짤아서 그런건 아니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설거야... 아니라고 생각할거야!! ㅋ ㅋ ㅋ 그래도 '감사합니다'랑 '괜찮아요'는 확실히 알려 주었다 뭐~!

밥을 조금 먹고 나서는 우린 연예인처럼 계속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여기서 승현이는 운명의 그녀(?)를 만났지. 그 집 주인집 딸이었는데 예뻐더라고. 아이고~ 승현이는 그 아이가 예쁘다고 어찌나 계속 말하던지... 그럼 뭐해?! 이미 남자친구도 있는데... 뭐?! 콜거터 있다고 콜 안 들어 가냐고? 이모도 참... 콜 들어갔다고 콜거터가 막막 바퀴진 않잖아요~ ㅋ 다시 보기도 힘든 여인을 그저 가슴에 품어 둘 뿐이지... 아, 맞다. 그리고 그 집 꼬맹이 하나가 이제 막 영어를 배우는 모양인데, 할 줄 아는 영어가 "What's your name?" 뿐이어서 내 이름을 수십 번 말했다 정말~ ㅋ ㅋ ㅋ

그렇게 한참 놀다가 집에 간다고 하니, 한국의 명절 때처럼 어른인 누리타가 집의 꼬맹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집주인은 음식을 싸서 우리에게 주어줬어. 와~ 사람 사는 곳은 거의 비슷비슷하구나 생각했지~ ㅋ 특히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국수요리를 잔뜩 싸 주셔서, 우리는 감기로 고생 중이라 함께 오지 못한 범진이에게 다 가져다 주었는데 말이야~ ㅋ 그게 신나게 말려 이 노래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1-2시간 만에 상했지 뭐야~ ㅋ ㅋ ㅋ 안 그래도 애 하나 집을 뺐 했어, 원래 그런 맛인 줄 알고 먹었으면 어쩔 뻔 했을까 싶단니까. 뭐?! 범진이는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ㅋ ㅋ ㅋ 듣고 보니 그러네~ ㅋ ㅋ ㅋ 아~ 이모, 나 하도 먹어서 배부르고 즐겁다. 오늘은 이만큼만 이야기 해 줄게요, 다음에 또 볼게요~!!



3. 메뉴

나시코랭	5.50
로티콤	1.20
콜뱅이	30.5
종합탕	20.0
나시트막	6.00
원판미	7.80

3) 친구set_하리라야파티 위즈마하라판

이모,

오늘 우리 위즈마 하라판 하리라야 파티에 초대받아 다녀왔어, 하리라야 파티가 뭔지는 어제 설명했으니까 안 할거야. 잘 들어~ 이번파티는 말이야, 학교 전체의 파티라서 규모가 크더라고. 출장 뷔페 같은 것도 나와서 음식도 많고 다양하더라고. 하리라야 파티에 맞춰서 우리는 모두 한복을 입고 갔어.

그런데 잊잖아, 갑자기 짧은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뭐야? 아... 우리는 엄청 당황하면서 이게 예전 가수들이 말한 갑작스런.. 정말 돌발적인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지. 한복을 입고 있어 GETE를 출순 없고... 무얼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번 Mid-autumn행사에 만난 할아버지께서 '아리랑'을 먼저 불러 주신 게 번쩍 떠올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색한 '아리랑'과 급조한 희정이의 눈물겨운 소개춤이 시작되었어. 하는 우리는 벅찼었는데 보는 사람들은 신기해하더라고... 고맙지 뭐.. ㅋㅋㅋㅋ 이모도 같이 했음 좋았을 텐데... 잘하잖아 우리 이~모오~ ㅋ 일단 시작은 했는데 언제 끝내야 할지 몰라서 얼렁뚱땅 끝내고 나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 ㅋ 사람들이 참 착해~ ㅎㅎ

그 어색한 공연이 끝나고 나니, 여기저기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 사람들이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좋아했지. 그 교장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특히 좋아했어~ ㅋ 그러면서 아리랑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서... 완전 당황했지. 웃지마... 이모도 모르잖아~~. 다급하게 여중의 일종이라고 에두르고선 다음과 사람과 사진을 찍었지. 그날 연예인이었어 우리. 어찌나들 사진을 찍자고 하던지... ㅎㅎ

그 중에서 제일 신나보이는 건 '나즈린'이었어. 나즈린은 우리가 위즈마 하라판 활동하면서 정말 친구가 된 사람인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말레이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어. 특히 특유의 리듬감으로 라온아띠(도.미솔#도)를 부를 때는 어찌나 즐거운지. 이날도 신나서 우리를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승현이 한복 조끼를 입고선 아이처럼 웃었지. 자기는 말레이계 한국인이라며 즐거워했어~ ㅋ ㅋ ㅋ ㅋ. 근데 그는 왜, 고맙다는 말을 '아리가또'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짬 서운하네... ㅋ 일본 참 무서운 나라야... ㅋ ㅋ ㅋ

그래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음식이었지. 아~~ satay라고 알아?! 우리나라 꼬치 같은건데, 양고기 닭고기를 꼬서 야채랑 삼발 소스에 찍어 먹어. 또 말레이식 빙수 ABC도 우리 스타일로 변형에서 먹었더니 아... 그것도 정말 좋더라~. 최고의 디저트야. 또 생각나네 점심. 이모도 다음에 오면 먹어봐... 아, 근데 우리 스타일을 안 가르쳐 줄거야 ㅋ ㅋ ㅋ ㅋ ㅋ.

이모, 내일이면 위즈마 하라판에서의 활동이 끝난다?! 그래서 오늘이 더 즐겁고, 더 아쉽고, 더 재미있었어. 다음엔 이모도 같이 가자. 때를 잘 맞춰야 하긴 하지만... 뭐 그건 이모 윤이니까 ㅋ ㅋ ㅋ ㅋ ㅋ 뭐?! 문답을 시간이라고?! 알았어. 그만하게. 안녕~! ㅋ



3. 메뉴

나시코랭	5.50
로티봄	1.20
폴뱅이	30.5
홍합탕	20.0
나시트막	6.00
원판미	7.80

3) 친구set_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추억

이모,

우리 또 왔어요~ 오늘 KL 떠나거든~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피곤해 보인다고? 음.. 좀 피곤하긴 해. 주말에 홈스테이 가족들과 작별인사 나누느라 좀 바빴거든요. 지난 토요일에 비빔밥을 만들어서 대접했어. 점심때는 여자들 숙소 가족이었던 Luia 저녁때는 남자들 숙소 가족이었던 캐서린, 데릭, 데릭 친구들과 함께 먹었어. 가져 온 고추장에 한국 쌀까지 사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 분들보다 우리가 더 좋아했던 거 같아. ㅋ 뭐, 그래도 그 분들도 맛있게 드셨어요~)



맛?! 별고 심지 않을 정도면 된 거잖아요~ ㅋ 하여튼 밥 먹고서는 살짝 지내르 나가서 말레이시아 전문의의 밤을 보았지. 트윈타워가 보이는 바에서 술도 한잔씩하고 데릭, 캐서린, 데릭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지~ ㅋ 근데 그 bar가 막막 폐거지로 가기엔 좀.. 맘에 이모랑 나랑 단 둘이 가자~ 대신 이모가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놀러간 거 처음은 아니예요, 말레이시아에 온 첫 주말에 홈스테이 식구들이랑 KL 중심부를 구경 갔어. 메르데카 광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 메르데카는 말레이어로 '독립'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거긴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광장이야. 100M 높이의 국기 게양대가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인데, 우리 밤에 가서 근처를 못 둘러봐서 아쉬웠어...



그리고는 KL 타워 가서 말레이시아 전통 집들을 보고, 민속놀이를 직접 해 봤죠. 아... 그런 곳을 더 많이 갔어야 하는데... 뭐? KL타워가 뭐냐고? ... 음, 남산타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말레이시아의 상징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이모도 알지? 쌍둥이 빌딩 말이야~ 거기는 엄청 높고 화려하더라. 그 앞에서도 사진만 찍었어. 아쉬워지만 어쩔거겠어... ㅋ 떠나기 전에 다시 가보려고~ 이모도 call? ㅋ ㅋ

3. 메뉴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폴뱅이	30.5
홍합탕	20.0
나시프막	6.00
원판미	7.80

3) 친구set_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추억

Mid-autumn 날에는 아파트 뒤쪽 수영장에서 작은 파티도 했어. 그 식구들이 다 중국계라 그 날을 지내더라고. 월병 나눠먹고, 초 쪼아서 수영장에 띄우고, 등불도 켜고, 에그타르트 먹고, 와이드 조금 마시고... 낭만적인 밤이었어. 다른 모습의 추억을 지낸 느낌? 월병 맛있냐고? 이모가 좋아할 거야, 달고 달고 달고 달거든... ㅋㅋㅋ 나이 들면 단 게 땡긴다며? ㅋㅋㅋ 아, 캐서린이 YMCA에서 우리 미드어텀 행사할 때 노래도 가르쳐줬어요. '보름달'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요즘 애들이 달을 보며 놀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이었어. 불러달라고? 유엔 량 유엔~(시술술과미레도) 아, 까먹었다... 그 때 다 외웠었어!!

뭐? 이거저거 해주셔서 비빔밥 대접한 거냐고? 에이~~ 이모는 우리를 무척로 보는 거야~ 뭐... 일 단 지내게 해 준 것도 고맙고, 지내는 동안 불편한 거 없는 지 챙겨준 것도 고맙고, 이거저거 고맙고 헤어지러니까 아쉬워서 그런거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거잖아?! ㅋㅋㅋ 그리고 또 지내는 동안 이런저런 추억도 많이 쌓았고... 음.. 버스타고 다니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주변 구경하는 묘미도 있었어. 다 똑같이 생긴 영국식 가옥들이 많았는데, 딱 보기에 비싸 보이는 건물엔 꼭 중국어가 써 있더라고.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는 모습도 피부색 같은 애들끼리 다니는 것 같아서 조금 슬퍼하기도 했고. 뭐... 무엇보다 러시아워를 처절하게 경험했죠...;) ㅋㅋㅋ 집이 이상적이었던 거 열쇠를 들고나가면... 집에 사람이 감해...;) 현관문 말고도 철조망 문을 만들어서 자물쇠를 무척하게 많이 달았더라고. 불나면 어쩔까 걱정했어. 그리고 여자들은 3명이 쓰기에 방이 좀 작아서 처음에는 좀 답답했었는데... 뭐... 지금은 서로 살 부대끼면서 특별한 감정까지 생겼어... ㅋㅋㅋ 로라도 이거저거 신경 많이 써 줬지만... 방에 개미는 어쩔 수 없더라. 귀여운 도마뱀도 함께 살았지. 아... 이제 가서 자야겠어. 근데 잠이안 오네... 떠나러니까 개미까지 정이 든 거 있죠? 진부 다 아쉬우고 고맙기만 하네. 이모도 우리 보낼 때 이런 기분이었죠? 아니어도 그랬다고 해주... 이모 잘 지내고 계시어요. 다음 달 즈음에 또 봐요. 아~~ 벌써부터 보고 싶네요... 우리 아나 이모... ^^ ㅋ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볶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10월 우리의 목표 베다니 홈에 등지 틀기

은지 베다니 홈 아이들의 이을 5명 이상 외우는 것.

이름을 외운다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되는 시작인 거니까.

승현 베다니의 아이들에게 나만의 인사법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되고 싶다

범진 봉사자던 선생님이던 아이들이던
베다니홈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귀겠다

이유는 없다. 사귀고 싶다..... 사실은 외로워서.....

희정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웃고, 먼저 인사하겠다.

웃으면 복이 오고 사람이 오고 마음이 오니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물 흐르듯 함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숙정 1명의 선생님과 3분 이상의 진중한 대화를 할 친분쌓기
2명의 아이들이 나를 보고 뛰어 올 수 있기
1명의 봉사자와 3분 이상 진중한 대화를 할 친분 쌓기.
베다니 홈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관계를 맺는 것에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기 위해 일부로라도 숫자를 정해두고 목표로 삼고 싶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메기 오빠가 만든 공간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나도 도움을 주고 싶은 의지가 불타 오르고 있다.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볶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우리는 달마다 장소가 바뀌므로 매 달 새로운 녹색소비 목표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10월 우리의 녹색소비 목표

1. Tak 빨대!

: 이모, 빨대 없이 주세요..

말레이시아는 모든 음료에 빨대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인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녹색소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2. 베다니홈 걸어다니기!

: 숙소에서 베다니홈까지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걸어서 베다니홈까지 가고 오는 것으로
녹색소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3. 나갈 때 전기 스위치 확인!

: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갈 때는 항상 모든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나갑니다.

이모, 오늘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아~ 다음에도 알죠??